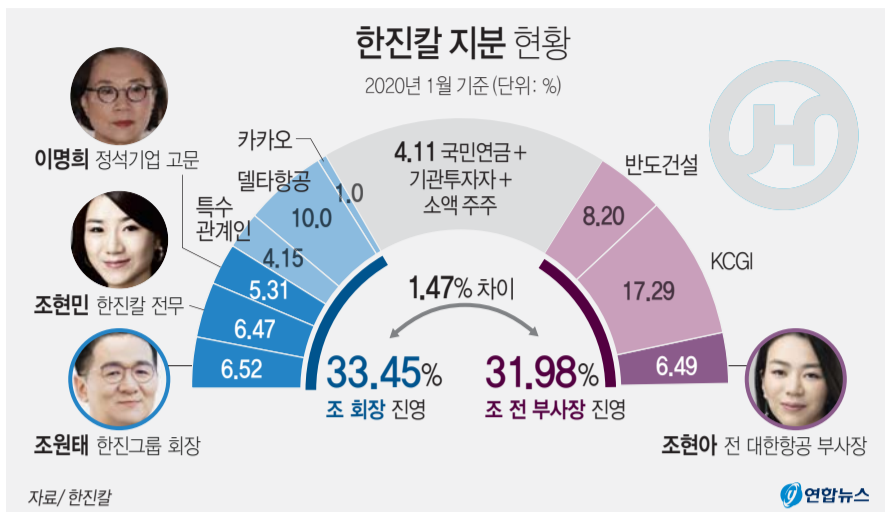


조원태의 왜신카드 1.47% 표차... 결국 국민연금

국민연금 표심에 승패 갈릴 듯
금투업, 외부연합 조현아보다
안정적 경영 조원태에 무게추
경영·주주친화 정책 등 쟁점

33.45%대 31.98%. 그야말로 박빙이다. 한진칼의 지분은 크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의 '반(反) 조원태 연합'으로 양분할 수 있다. 두 세력은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자리를 두고 치열한 의결권 싸움을 예고했다. 결과는 국민연금 등 중립 세력의 표심을 잡는 쪽에 달렸다. 금융투자업계는 외부세력의 연합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조 회장에게 표심이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영권 싸움이 치열했던 지난 주 한진칼 주식은 요동쳤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의 연합 소식에 주가가 장 중 4%나 급등했고, 이후 급등의 부담감으로 약세흐름을 보였다. 이어 조 회장이 한진칼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33.45% vs 31.98%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경영권은 한진그룹 일가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3자 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지분은 33.45% 대 31.98%로 박빙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칼의 주가를 움직이는 포인트는 불안정"이라면서 "주주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3월 주주총회까지 주가는 불안정한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조원태 회장의 확실한 우호 지분

은 본인의 지분(6.52%)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조현민 진에어 전무(6.47%), 델타항공(10%), 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4.15%) 등 33.45%다. 조 전 부사장의 연합군은 KCGI(17.29%), 반도건설(8.28%), 조 전 부사장(6.49%) 등 총 32.06%다. 이 중 반도건설의 의결권 유효 지분은 8.20%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분율은 31.98%다.

두 세력이 한진칼 사내이사 자리를 두고 치열한 표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사내이사에 전문경영인을 내세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 회장은 이사회 의장 자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넘겨 경영의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한진칼 사내이사 자리는 주총에서 출석 주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민연금, 소액주주 등 외부인의 지지를 끌어오는 쪽이 이긴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기준 3.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델타항공을 제외한 외국인의 지분은 2%, 기타 개인 주주가 29.03%를 갖고 있다.

◆"조 회장, 반대 명분 없어"

사실상 국민연금의 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톡홀름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에 명분있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누가 경영권을 가지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스틴베스트 등 외부전문기관의 의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표심이 조 회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CGI가 궁극적으로 주가 상승을 통한 가치실현이 목적인다는 의구심을 해결

하지 못하고, 조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지배구조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아서다.

양진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부 자문기관에서 한진칼 조원태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할 만한 뚜렷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우호적인 외부자문기관의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KCGI측은 물류 및 항공운송분야에서 현 경영진보다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를 내세워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조 회장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투명경영 담보방안 등을 내놓으며 소액주주의 표심을 모으고 있다.

조 회장은 이사회 의장 자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넘기고, 7인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외이사를 4명으로 확대해 '견제받는 권력'이 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또 매년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기로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총까지 관전 포인트는 각자 내놓은 경영, 주주 가치 제고 계획"이라면서 "국민연금 등 중립에 있는 의결권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조현아 이끈 호텔사업 적자 2866억 '눈덩이'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15억 육박
총부채 2866억...전년비 332억 ↑

조현아 전 부사장이 주도하며 적자를 내 온 호텔업이 '남매의 난'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진그룹 내 호텔사업을 주도해왔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허를 찔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적자만 낳고 있는 호텔업에 대해 매각 및 사업성 재검토 등을 하기로 나섰기 때문. 5개의 호텔을 운영 중인 한진그룹은 실적에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칼호텔네트워크 자체의 매각은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 조원태 연합'이 어떤 주주제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대

한항공·한진칼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호텔업 관련 부지 등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자사가 소유한 서울 송현동 부지, 왕산레저개발 지분의 연내 매각을 위해 매각 중간사를 선정키로 했고 한진칼은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 소유의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부지를 매각키로 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미국 LA소재 월셔그랜드센터 및 인천 소재 그랜드 하얏트 인천 등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개발·육성 또는 구조 개편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레저 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그랜드하얏트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제주, 월셔그랜드센터내 인터컨티넨탈호텔 등 호텔 사업을 운영

중인 한진칼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진칼 호텔업은 매출 960억원, 영업손실 14억9682만원 을 기록했다. 또한 총부채도 2866억원을 나타내 전년 동기 대비 332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미국 LA소재 월셔그랜드센터 내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7년 6월 재개발을 통해 개편한 이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영업손실은 ▲2017년 500억8802만원 ▲2018년 565억8411만원 ▲2019년 3분기 410억8092만원을 기록했다. 약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적자만 총 1478억원가량을 낸 것이다.

한편 한진그룹이 호텔 매각에 나서며 조 전 부사장과 본격적인 경영권 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연합뉴스

쟁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호텔 사업의 중추인 '칼호텔네트워크'의 매각은 거론하지 않아 주주총회 전까지 마지막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는 평가도 우세하다. 반면 이미 '3자 동맹'을 구축한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한진 "택배·물류 집중, 수익낮은 사업 정리"

이사회, 기업지배구조 방안 발표
부동산·주식 등 정리, 1440억 확보

한진이 핵심 사업인 택배·물류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수익성이 저조하거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 매각을 통해 1440억원의 '실탄'도 추가로 마련한다.

한진은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경영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9일 밝혔다.

우선 한진은 택배사업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처리 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얼라이언스 물량 확보와 물류센터 인프라 확대를 통해 물류사업 추가 성장도 도모한다.

또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추가 공략을 위한 인천공항 GDC(글로벌 물류센터) 운영 및 항공사와 연계한 GSA(General Sales Agent·총판대리점) 사업도 확대해 매출 성장을 꾀한다.

핵심사업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도가 낮거나 대체 부지 확보가 가능한 부동

산, 유동화 가능한 주식 등 자산 매각도 적극 나선다.

부산 감천, 서울 독산동 부지뿐만 아니라 강남택배, 원주택배, 광양지점 및 사택 등 부동산을 매각해 13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금융, 아이에스커머스, 포스코출자지분도 매각해 14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 확보도 목표하고 있다.

한진은 지난해 이미 동대구 및 서대구 버스터미널 등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해 약 370억원을 확보, 택배 자동화 등 핵심 사업 인프라 확보에 투자한 바 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한진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선 이사회와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산하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내부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한 거버넌스위원회와 보상위원회도 세

로 만든다.

거버넌스위원회는 회사 경영 사항 중 자본 변동, 출자 등 주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사전 검토해 주주 권익 제고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도 설치했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발표한 경영 발전 방안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